

## 고전소설의 바다 건너 신세계 지향과 의미

- <홍길동전>과 <수호후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윤희\*\*

— <차 례> —

1. 머리말
2. <홍길동전>과 <수호후전>의 바다 지향
  - 1) 유토피아적 미개척지의 낭만적 기대- <홍길동전>
  - 2) 현실적 망명지에 대한 낙관적 기대 - <수호후전>
3. <홍길동전>과 <수호후전>의 해양 인식의 이중성
4. 맺는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홍길동전>과 <수호후전>에 형상화 된 바다 인식을 대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주요 등장인물들이 바다를 건너 새로운 세계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 이유와 바다 건너 세계에 대한 인식에 전착하였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과 <수호후전>에서 이준이 바다를 지향한 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향이다. 그러나 <홍길동전>에 나타난 바다 건너 공간인 울도국은 낭만적으로 꿈꾼 유토피아적 미개척지이다. 반면 <수호후전>의 이준과 이들 일행에게 섬라국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의 탈출구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망명지였다.

<홍길동전>과 <수호후전>에 나타난 바다를 탈출의 통로로 인식한 공통점이 있지만, <홍길동전>의 바다는 자신의 이상으로 향하는 통로, 미개척지를 향해 열려 있는 통로, 낭만적 기대의 통로인 반면, <수호후전>의 바다는 현실 탈출의 유

\* 이 논문은 2012한국고전연구학회와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에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2012.08.16~17)에서 “한국 고전문학과 바다”라는 기획 주제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임.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

일한 도피처라는 점에서 의미 지향은 다르다. 둘째 두 작품에서 바다는 차단과 단절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홍길동전>은 바다를 막연한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차단과 단절의 기능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 반면 <수호후전>은 바다를 문명의 차이와 차별을 발생시키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해양 인식의 같고 다른 점은 여기에 있다.

**주제어** 홍길동전, 수호후전, 유토피아적 미개척지, 현실적 망명지, 해양인식의 이중성, 탈출의 통로, 단절

## 1. 머리말

인간은 의미 작용을 갖는 대상 사이에 삼차원적 상호관계가 있는 안정된 공간을 획득하려 한다. 이는 공간이 공간 자체로써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주체자인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의미를 얻고 실존한다는<sup>1)</sup> 뜻이다. 즉 인간에 의해,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인간이 부여한 의미에 의해 공간의 이미지, 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한정된 장소 내에서 보호받으며 안정을 도모하는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장소적 제약과 한계를 벗어나 자유롭고 분방한 삶을 구가하기도 하는 실존적 부조리를 보여준다.<sup>2)</sup> 인간이 실존적 부조리의 현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기제는 문학작품이다. 이에 본고는 고전소설에서의 공간 인식,<sup>3)</sup> 특히 해양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슐츠, 김광현 역, 『실존, 공간, 건축』, 산업도서출판공사, 1980, 21면

2) 장일구, 『경계와 이행의 서사 공간』,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3) 고전소설의 공간에 대한 연구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비현실 공간 혹은 가상 공간에 대한 논의와 인물의 지리적 궤적의 의미 장소적 공간으로서 논의가 있다. 본고의 논의는 전자와 후자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대해서는 매거하지 않겠다. 양해를 구한다.

문학 작품의 공간에 대한 고찰에 앞서 <홍길동전>과 관련된 다음의 기록을 보도록 한다.

세상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수호전>을 지은 사람의 집안이 3대 동안 농아가 되어 그 응보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도적들이 바로 그 책을 높이 떠받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허균과 박엽 등은 그 책을 너무도 좋아한 나머지 적장의 별명을 하나씩 차지하고서 서로 그 이름을 부르며 장난을 쳤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허균은 또 <수호전>을 본떠 <홍길동전>을 짓기까지 하였는데, 그의 무리인 서양갑과 심우영 등이 소설 속의 행동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다가 한 마을이 쑥밭으로 변하였고, 허균 자신도 반란을 도모하다가 복주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농아보다도 더 심한 응보를 받은 것이라고 하겠다.<sup>4)</sup>

택당 이식(1584~1647)이 <홍길동전>과 중국의 사대기서 중 하나인 <수호전>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허균(1569~1618)이 <수호전>에 심취하여 <홍길동전>을 지었고, 허균의 동류들은 <수호전>을 흑호(酷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호전>의 인기는 허균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인선왕후(1618~1674)의 인간, 18세기의 완산이씨 『중국소설회모본』(1762), 유만주의 『흠영』에도 <수호전>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바는 <수호전> 뿐만 아니라 <수호전>의 속서들 역시 함께 유행·유통되었다는 사실이다. <수호전>의 속서인 <후수호전>, <수호후전>, <탕구지>로 불리는 <결수호전> 등의 기록이 『중국소설회모본』에 있고, <후수호전>의 경우 낙선재에 한글로 번역되어 전한다.

4) 世傳作水滸傳人，三代龔啞，受其報應，爲盜賊奪其書也，許筠朴燁等好其書，以其賊將別名，各占爲號以相謔，筠又作洪吉同傳，以擬水滸，其徒徐羊甲，沈友英等，躬蹈其行，一村糞粉，筠亦叛誅，此甚於龔啞之報也。李植，『澤堂集』15권 「雜著」.

<홍길동전>과 <수호전>의 영향 관계와 관련된 연구는 새삼스러울 바 없다.<sup>5)</sup> 그러나 <수호전>의 속서인 <수호후전>에<sup>6)</sup>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홍길동전>과 <수호후전>과의 비교 연구도 본격적인 연구도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세계의 건설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점만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사실 <홍길동전>과 <수호후전>은 여러 모로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수호전>에 감동을 받은 허균이 우리 문학적 환경과 현실에 기반하여 창작한 <홍길동전>과 중국 작가가 연작의 형태로 전작을 계승한 <수호후전>은 원작의 계승과 변용이란 측면 자체만으로도 대비의 의의가 존재한다. 전작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계승했고 변주를 이루었으며, 새로운 의경의 창출은 어떤 면에서 확보했는가 등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고는 두 작품을 전체적으로 대비하려는 의도를 지니지 않았다. 논의를 국한하여 두 작품에 나타난 '바다[海洋] 인식'만을 대비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두 작품에 나타난 해양 인식의 동이를 확인함으로써 한중 문학 작품에 나타난 해양 인식의 단면을 보려는 것이다. 다만 두

5) <홍길동전>과 <수호전>의 관련성에 대한 관련 연구 또한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나,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상익, 『홍길동전과 수호전과의 비교연구』, 『국어교육』 4,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62; 장주옥, 『수호전과 홍길동전의 비교 연구』, 『향란문학』 5, 성신여자 사범대학 국어국문학회, 1975; 김정육, 『명대소설과 이조시대 소설연구 수호전과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경대문화』 9, 경남대학교, 1976; 임형택, 『홍길동전의 신고찰』, 『창작과 비평』 11-4, 1976; 이려추, 『수호전과 홍길동전의 비교연구』, 『아시아문화연구』 14,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8; 최병우, 『한중 고전소설에 나타난 욕망과 그 실현 양상- <홍길동전>과 <수호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8, 한중인문학회, 2009.

6) 여기서 속서와 연작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속서의 경우 중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어휘이지만, 국내에서는 속서라는 용어보다 연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수호후전>은 중국 작품이기 때문에 중국 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작품에는 해양이 어떠한지 정의나 서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작품에 나타난 해양 인식을 직접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두 작품에 나타난 해양과 관련한 정보나 내용을 토대로 해양 인식을 추출하고 양자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예컨대, 작품의 주요 등장 인물들이 바다를 건너 새로운 세계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 이유와 바다 건너의 세계에 대한 인식 등을 토대로 하여 두 작품의 해양 인식을 대비하려는 것이다. 이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 정보의 추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상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비교, 분석하는 것이 최대한의 유효한 작업이란 일반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 2. <홍길동전>과 <수호후전>의 바다 지향

### 1) 유토피아적 미개척지의 낭만적 기대- <홍길동전>

<홍길동전>의 연구는 작가, 생성과 형성, 중국소설과의 영향, 국내 여타 작품과의 비교 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sup>7)</sup> 이것은 판본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선행본으로 논의된 경판 30장본을 주 텍스트로 삼기로 한다.<sup>8)</sup>

7) 본고는 <홍길동전> 작품론이 아니므로, 기존 연구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홍길동전> 관련 연구 성과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석수, 『홍길동전 연구사 시고』,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1985 참조.

8) 판본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정규복, 『홍길동전 이본고 1, 2』, 『국어국문학』 48, 51, 국어국문학회, 1970, 1971; 송성욱, 『홍길동전 이본 신고』, 『관악어문연구』 1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정규복, 『홍길동전 텍스트의 문제』, 『정신문화연구원』 44, 정신문화연구원, 1991; 조용호, 『홍길동전 이본의 한 연구』, 『서강어문연구』 9, 서강대학교, 1993; 이윤석, 『홍길동전 원본 확정을 위한 시론』, 『동

<홍길동전>이 주목을 받아온 이유는 허균이라는 불운하지만 진보적인 작가, 서자와 도적의 이야기라는 문제의식,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건설했다는 것 등이다. 이 가운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홍길동의 새로운 세계 지향과 관련된다. 홍길동은 조선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이 아닌 세계를 찾아 조선을 떠나는가. 홍길동이 현실에 처한 상황과 그가 새로운 세계를 지향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애초 홍길동은 ‘장뵈 세상의 처허미 남의 천덕 바드미 불가’하다고<sup>9)</sup> 생각하며 개아(個我)를 억압하는 제반 사회적 기제에 대한 강한 반발 의식을 드러낸다. 어머니 춘낭에게 하직 인사를 하면서 ‘세상을 버셔나려’한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은자(隱者)가 되겠다는 것이 아닌 견고한 사회적 구조, 질서의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로 집을 나온 홍길동은 세상의 부조리와 억압적 질서의 틀에 맞선다. 도둑이 되어 탐관오리를 징치하는 것은, 자신이 지향하는 세계와 어긋난 세계에 대한 저항이자 일탈의 표시이다.

홍길동이 벗어나려고 했던 세계는 그것을 유지하는 힘에 비례하여 견고하다. 그러므로 홍길동의 일탈과 저항은 세계를 전복할 힘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자객의 침입을 예견하고 오히려 자객을 죽일 수 있는 능력, 천근이나 되는 돌을 들 수 있는 힘, 단숨에 도적의 괴수가 되어 무

박학지』 85,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4; 정규복, 『홍길동전 연구-서지와 해석-』 『고소설 연구』 5, 한국고소설학회, 1998, 이윤석, 『새로 소개하는 <홍길동전> 이본 몇가지』 『문학한글』 13, 한글학회, 1990.

9) <홍길동전> 경판 30장본, 5면. 김동욱, 『한국고전소설판각본자료집』 5, 국학자료원, 1997, 1003~1018면. 전엽과 후엽을 매 쪽으로 여겨 쪽수로 표기한다. 다만, 이 책에서 누락된 54쪽과 55쪽은 이윤석의 『<홍길동전> 경판 30장본에 대하여』 사재동, 『한국서사문학사연구』, 중앙문화사, 1995) 논문에 영인 수록된 부분을 적용한다. 이하 인용문은 따르되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다.

예를 연마케 하고 군법을 정리하는 지도력, 해인사 승들이 마련한 음식을 먹으면서 모래를 넣고 씹어 이를 꼬투리 잡아 재물을 취득하는 지략 등은 그가 일군(一群)의 우두머리가 될 능력을 지닌 영웅임을 의미한다. 홍길동은 개인적으로 군장(君長)의 능력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셈이다. 또한 그가 벌인 활동은 자신이 벗어나려는 세계에 대한 일탈과 저항이지만, 불의한 일은 아니다. ‘각 읍 수령이 불의로 지물이 잇스면 탈취하고’, ‘지빈 무의흔 지 잇스면 구제’하며, ‘빅성을 침범치 아니’하고 ‘나라의 속헌 지물은 추호도 범’하지 않는다. 요컨대 홍길동은 용력과 지력, 의기에 있어 그를 천대하고 억압하던 사회를 전복시킬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팔도 각 읍이 소요하여 밤의 능히 잠을 죽지 못하고 도로의 형인이 끈쳐시니, 이러므로 팔도 요란’<sup>10)</sup>했음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지만 세계를 전복시킬 수 있는 홍길동의 힘은 대척적 입장에서 보자면 국가의 대환(大患)이요, 멸문지화의 근원이 된다. 당연하게 홍길동이 추구하던 바, 세계의 전복과 새로운 질서의 구축은 소요와 분란, 에너지의 소모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대환이고 멸문지화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홍길동과 세계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세력이 타협할 수 있는 까닭이다. 홍길동과 그 대척적 세력 누구도 많은 희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은 이루어진다.<sup>11)</sup> 홍길동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천대하고 억압하던 사회 기제를 선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세

10) <홍길동전> 경판 30장본, 20면.

11) 홍길동이 사회 제도와외의 투쟁에서 승리한 것은 당대의 사회 체제를 긍정하면서 이루어지므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써 온전하고 무제한적인 승리를 위해서 공간적 이동을 전개한 것이라 한 논의가 있다. 즉 홍길동이 투쟁의 목표를 바꾸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라 보았다. 서종문, 『홍길동전 울도국의 생성과 그 의미』, 『고전문학의 사회역사적 소동』, 박문사, 2009, 119면. 이는 홍길동이 기존 세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 타협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면 동의할 만하다.

계를 불안케 하는 힘의 근원인 홍길동이 멀리 떠나는 방식의 타협이다. 요컨대 국왕이 사대문에 병조판서 제수의 교지를 내리고, 홍길동은 ‘스모 관당의 서씨 띄고 놓흔 초헌을 타고 디로상의 완연’히 자신을 과시하게 된다. 천대와 억압의 대상이 아닌 떳떳한 모습, 자유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에 홍길동의 적대 세력은 ‘병조판서를 혼 번 지니면 도션을 썬나’라는 요구를 한다. 홍길동이라는 전복의 힘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홍길동의 바다 건너 새로운 세계의 지향은 바로 이같은 지점에 존재하고 있다. 다음을 보자.

신이 전하를 밋드러 만세를 피시려 호오나, 혼갓 천비 쇼성이라 문과를 호오나 옥당의 참너치 못홀 거시오 무과를 호오나 선천의 막허올리니 이러 무로 마음을 정치 못호와 팔방으로 오유호으며 무뢰지당으로 관부의 작폐호 읍고 도정을 요란케 호오문 신의 일흠을 들츄와 전히 아르시게 호오미러니 국은이 망극호와 신의 쇼원을 푸러쥬옵시니 충성으로 섬기미 올스오나 그 러치 못호와 전하를 하직호옵고 도션을 영영 썬나 혼 업슨 길을 가오니 정 조 일천 석을 서강으로 다여 쥬옵시면 전하 덕턱으로 슈천 인명이 보전헐 가 호나이다<sup>12)</sup>

홍길동이 조선을 떠나면서 국왕 세종과 나눈 대화이다. 홍길동은 자신이 세상에 저항했던 이유를 밝히고 ‘혼 업슨 길’을 간다고 말한다. 여기서 홍길동이 세상에 소요를 일으킨 까닭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가 소요를 일으킨 까닭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 국왕에게 알리고자 함이며, 국왕을 통해 자신의 억압 기제를 제거하고자 했던 까닭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무뢰지당으로 관부에 작폐”하는 과정, 즉 자신

12) <홍길동전> 경판 30장본, 35~36면.

이 세상을 전복하거나 그에 준하는 소요를 일으킬만한 힘이 있음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자신의 억압 기제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그가 세상에 용납될 수 없는 존재,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지기 곤란한 존재로 위치지어진다. 홍길동은 그의 억압 기제를 선언적으로 제거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전혀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새로운 지배 질서를 구축할 힘을 가진 자, 즉 잠재적이지만 불온한 새로운 지배자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기존 세계와 충돌할 가능성을 존속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홍길동은 기존 세계와의 충돌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바다 건너 세계를 지향한다. 홍길동이 바다 건너 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후에야 비로소 기존에 그가 몸 담았던 세계와 양립 혹은 공존할 수 있게 된다. 바다라는 공간이 두 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울도국 건설 후 조선에 대한 홍길동의 대응, 홍길동에 대한 조선의 대응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왕[홍길동:필자 주]이 조회를 파하고 빅용을 갖가니 하여 일너 왈 과인이 이제 왕위의 거하나 본디 묘선 스품으로 우연이 이리 되여시니 포의에 과극 혼지라 묘선 성상이 과인을 위하여 정묘 일천 석을 샐급하시니 그 덕택이 하히갓튼지라 엇지 그 망극헌 성덕을 니즈리오 이제 경으로 샐례코져 하는 니 경은 슈고를 앓기지 말고 슈천 니 원노의 무스이 단여오물 바리노라<sup>13)</sup>

울도국의 왕이 된 길동이 조선의 국왕에게 빌렸던 벼 일천 석을 갚고자 사신을 조선에 보낸다. 기존 질서체계에서 조선의 국왕과 길동은 군신 관계였지만, 울도국의 왕이 된 후 홍길동은 자신을 ‘과인’ 그리고 조선의 국

13) <홍길동전> 경판 30장본, 52면.

왕 세종을 “도선 성상”이라 칭한다. 그리고 조선을 떠나 올 때 받았던 벼도 반환한다. 이는 두 세계가 완전한 대등은 아닐지라도 적당한 선에서 공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조선의 국왕이 율도국왕의 사신을 맞은 후 답례로 홍길동의 형 홍인형을 율도국 위유사로 보내는 것에서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기존 세계는 바다 건너 자기 세계를 구축한 홍길동을 적당한 선에서 인정함으로써 두 세계는 더 이상의 충돌없이 공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홍길동이 바다 건너서 구축하려 했던 공간은 어떠한 곳인가.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봉산의 니르러는 진짓 제일 강산이라 쥬회 칠백 니오 옥야 가장 기름진 지라 너심외 혜오되 너 임의 도선을 하직혀여스니 이 곳의 와 아직 은거혀여다가 대스를 도모히리라<sup>14)</sup>

더히의 씨 남경 썬 제도섬으로 드러가 슈십만 집을 지으며 농업을 힘쓰고 혹 지조를 비아 무고를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니 이 곳은 본디 그윽흔 곳이라 알 이 업고 쏘흔 가산이 부요흔지라<sup>15)</sup>

홍길동은 바다 건너 새로운 세계로 향한다. 그곳은 꿈과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억압받던 자신의 개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땅이다. 홍길동이 남모르게 조용히 있다가 ‘대스’를 도모할 수 있는 곳이다. 자신만의 왕국, 자신이 꿈꾸는 지배질서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미지의 공간을 발견한 것이다. 자신의 지배 질서를 구축할 공간은 지리적으로는 둘레가

14) <홍길동전> 30장본, 34면.

15) <홍길동전> 30장본, 37면.

칠백이고 기름진 땅이다. 이는 홍길동에게 이상 실현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공간인 셈이다. 이 공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좀 더 보도록 하자.

문득 스름의 소리 느껴 등축이 쪼요허거늘 심중의 다항허여 그 곳을 츠즈 가니 스름은 아니요 괴물이 무슈이 땅을 지어 안져 셔로 조화허거늘 가마니 여어 본 즉 비록 스름의 형용이나 필경 증상의 무리라 원니 이 증상은 울동 이란 증상이니 여러 허 산중의 잇셔 변화 무궁허지라 길동이 싱각되되 니 두루 단여보아스나 이 갓튼 거슨 본 디 처음이라 이제 저 거슬 좁아 세상 스름을 보게 허리라 호고 몸을 감초와 활노 쏘니 그 중 웃듬 놀이 마즌지라 그 거시 쇼리를 지르고 다라나거늘<sup>16)</sup>

홍길동이 울도국 제도의 망당산의 요괴를 만나 죽이는 장면이다. 망당산의 요괴는 사람 소리를 내지만 사람은 아니고 ‘천 년을 묵어 조화’를 갖춘 짐승이다. 길동이 태어나 처음 보는 요물인 것이다. 이에 홍길동은 ‘풍 퍽을 불너 큰 바람이 니러나게 호고 활노 무슈이 쏘아 처치한다. 홍길동이 겪게 되는 바다 건너 세계는 지상 낙원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오히려 흉악한 괴물이 가득한 공간, 미지의 처녀지에 가깝다. 원시적 순수성이 가득한 공간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공간은 이미 구축된 질서의 세계와 따로 떨어져 존재하던 유토피아는 아니다.

바다 건너 세계는 기존의 홍길동이 경험한 가치 질서와는 판이한 성향의 공간, 질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공간이다. 원시적 순수성이나 혼돈, 시각에 따라서는 무질서가 가득하여 질서 구축의 소요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새로운 질서의 구축이 가능한 원시의 공간이요, 미개적 공간이며, 순수의 공간이다.<sup>17)</sup> 인문

16) <홍길동전> 경판 30장본, 38~39면

17) 울도국이 울도왕이 다스리던 나라였다는 점에서 울도국이 홍길동에게 원시의 공간

적 질서보다는 자연적 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인 셈이다. 홍길동은 이 같은 미개적, 원시의 순수성이 지켜진 공간으로 상징되는 제도를 거쳐 울도국의 왕위에까지 이르게 된다. 울도국은 수천 리나 되는 넓은 땅으로 사면이 산으로 막힌 철옹성의 천혜의 땅이다. 홍길동의 야망과 꿈을 실현할 공간이자, 조선과는 동떨어진 세계이다.

울도국 삼백육십 주를 순행케 하니 만조 빅관이 일시의 천세를 부르고 하례하며 원근 빅성드리 송덕 아니 리 업더라.<sup>18)</sup>

일국이 티평하여 스방의 일이 업고 국티민안하니 왕의 덕택이 성탕의 비길너라.<sup>19)</sup>

위의 인용문은 울도국을 차지했을 때의 백성들의 반응과 길동이 울도국을 통치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다. 결국 홍길동은 “성탕”에 비길만한 성군이 된다. 개인의 힘으로 울도국이라는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한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았던 세계를 열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꿈과 야망을 실현한 것이다. 그것은 덕이 있고 어진 왕의 출현이자 어둠과 혼돈의 세계를 열어 유토피아를 건설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홍길동의 공간 인식은 실제성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홍길동전>의 향유층이 만들어낸 상상적, 허구적 인식의 공간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홍길동전> 향유층이 직면한 현

---

이고, 미개적 공간이고, 순수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윽한 곳, 천혜의 철옹성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괴수와 같은 자연적 질서에 의해 지배 받는 곳으로 인식한 공간이 울도국이다.

18) <홍길동전> 경판 30장본, 51면.

19) <홍길동전> 경판 30장본, 52면.

실의 벽, 그들을 억압하는 기제를 벗어나려는 상상이 빛은 공간이자 관념적이고 허구적으로 조작한 이상적 꿈의 공간이다. <홍길동전> 향유층이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그들이 처한 현재적 시공간과는 다른 세계인 것이다. 요컨대, <홍길동전>에 나타난 바다 건너 공간은 그 향유층에게는 낭만적 개척지인 셈이다.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낭만적 상상과 허구적 기대로 만들어진 공간인 셈이다. <홍길동전>의 향유층은 홍길동을 통해 바다 건너 유토피아적 미개척지를 낭만적으로 꿈꿨던 것이다.

## 2) 현실적 망명지에 대한 낙관적 기대 - <수호후전>

<수호후전>은 <수호전>의 속서 가운데 하나이다. 송강의 죽음으로 끝나는 120회본 <수호전> 뒤를 이어 이준, 이응, 연청 등의 활동을 담았다. 이들은 간신이 백성을 박해하고 탐관과 토호가 백성을 해치는 것에 통탄하여 다시 산림에 모여든다. 그리고 채경과 고구 등의 간신을 처단하고 금나라가 쳐들어오자 해외로 나가 섬라국의 왕이 된 이준이 선정을 베푼다는 내용이다. <수호후전>은 8권 40회로 고송유민(古宋遺民)이 짓고 안탕산초(雁宕山樵)가 만력(萬曆) 무신년(1608)년에 평을 썼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영국박물관소장본에 의하면 강희(康熙) 갑진년(1664)년에 간행된 것이 초판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따라 안탕산초는 명말 청초의 진침(陳忱 1615~?)으로 그가 <수호후전>의 작가이며, 고송유민(古宋遺民)이 지었다는 것과 만력 무신년에 썼다는 것은 진침의 가탁으로<sup>20)</sup>

20) 진침(陳忱)은 시인으로도 명성을 떨쳤는데, 끝끝내 벼슬하지 않고 고염무(顧炎武 1613~1682)등과 함께 경은시사(驚隱詩社)를 만들었으며, 『안탕시집(雁宕詩集)』, 『안탕잡저(雁宕雜著)』, 『속이십일사탄사(續二十一史彈詞)』, 『치세계』 등이 있으나 현재는 <水滸後傳>과 『심계시징(溇溪詩徵)』에 수록된 106수의 일부 시만 전한다. <水滸後傳>, 『古本小說集成』 574, 上海古籍出版社.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수호후전>의 이준이 바다 건너 섬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홍길동전>의 길동이가 울도국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흡사하다. 그렇다면, <수호후전>의 이준이 바다를 건너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들이 지향한 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준이 말하길 우리들이 이제 중국에서 있으면서 간신배들 등쌀을 견딜 수가 없어 편히 살아볼까 해서 섬을 찾아 가는 길이다.<sup>21)</sup>

이준이 태호를 떠나 섬을 찾아 바다로 나가게 되었을 때, 절강성과 복건성 인접 지역 구산문에서 양산박 동료 허의를 만나 소회를 펼쳐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이준은 간신배들 등쌀에 견딜 수 없어서 섬을 찾아가노라고 말한다. 부정과 부패로 왜곡된 현실의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원래 이준은 심양강 어부였다. 그는 양산박에 들어가 방랍 토벌 작전에 참여한 후 벼슬을 마다하고 태호에 내려와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태호 북쪽 기슭 마적산에 은퇴한 관료 정자섭과 상주 태수 여지구가 태호의 물고기는 정자섭의 물고기라며, 고기 낚는 배들에게 허가권[수패]을 주고 낚은 고기에 대해서는 과도한 어세를 물리는 등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본다. 이에 이준이 반발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sup>22)</sup> 동위와 낙화 등의 도움으로 탈옥한 후 바다를 건너려고 한<sup>23)</sup> 것이다. 한

21) 李俊道 我等在中國 耐不得奸黨的氣 要尋一個海島安身. <水滸後傳> 11회, 世界書局, 11회, 1983, 97면. 이하 <水滸後傳> 인용문은 해당 회장 수와 인용 쪽수만 밝힌다.

22) 偌大一個太湖, 怎的做了你放生池! 我們便不打魚也罷, 怎生奪了衆百姓的飯碗! 氣他不過, 偏要去過界與他消遣一消遣, 看他怎麼樣! <水滸後傳> 9회 81면.

마디로 이준은 관료와 소인배들의 계교 속에서 있는 것보다 바다로 나가 새로운 거주처를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sup>24)</sup>

이것은 다른 무리들 역시 유사하다. 섬라국에 오기 전 등운산에 결집했던 난정옥, 손립, 원소칠, 호성, 손신, 고이주머니나 음마천에 모였던 주윤이나 배선, 두홍, 이웅, 공손승, 채경 등도 관료와 탐관들 그리고 토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섬라국을 찾아온다. 예컨대, 손신이 등운산에 결집했다는 이유로 손립은 핍박당하고, 손립의 처남인 낙화에게 편지를 전해 주려는 두홍은 양산박 잔당이라는 이유로 계약에 빠져 아무 잘못도 없이 유배를 간다. 이웅 또한 예기치 못한 사건 덕분에 개봉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르게 된다. 조용한 암자에서 불도를 닦으려했던 공손승조차도 번서가 한 요술을 공손승 짓이라 고해 받친 이양사 때문에 역시 음마천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양산박에 가담했던 사람들 혹은 그와 관련 있다는 이름 하에 고통을 받았다.

호연작이 말하길 이것은 작은 일로 그림자도 종적도 없는 일이요. 우리들 옛날의 형제들은 일도 많아 함께 모였었으나 귀순하여 조정에 공도 세우고 관직을 얻고 했으면 응당 본분을 지켜면서 살아야 할 것을 무슨 일로 동에서 일어나고 서에서 모아 부르니 일생 충의로 산 송공명을 흠칠하는 것은 물론이요, 내 면상에 광채가 적어지고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걸핏하면 양산박 잔당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오! 문장환이 말하길 모두 관료들이 핍박하니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밖에서 살던 나도 가만히 놔두질 않아 이 안으로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sup>25)</sup>

23) <水滸後傳> 9회 78~86면.

24) 但海中多有荒島, 兄弟們又都是服水性的, 不如出海再作區處, 不要在這裏與那班小人計較了. 衆人齊聲道是. <水滸後傳>, 10회, 94면.

25) 呼延灼道, 此是小事, 無影無踪, 怕他怎的! 我們舊時的兄弟多事得聚, 受了招安, 爲朝廷出過力, 拜除官爵, 也該守些本分, 爲甚麼東也起事, 西也嘯聚? 不惟壞了

위의 두 인용문은 호연작과 문장환의 대화이다. 호연작의 타박에 답하는 문장환의 말을 보면 세상일에 관심 밖이었던 자신도 함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양산박 잔당’이라는 낙인이 주홍글씨처럼 있기 때문이다. ‘우리 양산박 동지들 가운데 어느 하나 별탈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는<sup>26)</sup> 원소칠의 한탄은 양산박에 가담했던 일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해준다.

이같이 현재의 세계는 이준 일행, 양산박 일행이 용납될 수 없는 곳이다. 부정, 부패, 부조리한 세계는 이들을 안온한 상태로 남겨두지 않는다. 기존 질서와 가치 개념은 이들에게 도적의 무리란 주홍글씨를 새겨둔 채 박해를 가한다. 정당한 평가와 인식이 결여된 채 기존 질서를 해치는 무리만 여기는 부패한 현실에서 이들은 용납될 수 없다. 즉 이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가치와 질서 의식에서는 이들이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다. 현실에서 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변화, 개조, 수정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세계는 정의롭지 못한 공간이며 일말의 가능성도 차단된 곳이다. 이준과 그의 일행이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 순탄치는 않다. <홍길동전>에서 길동이 제도를 거쳐 울도국의 왕이 된 것처럼 <수호후전>의 이준 역시 금오도에서 기반을 닦은 다음 섬라국에 안착하게 된다. 금오도와 섬라국에 안착하기 전 이준은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막는 금오도와 섬라국의 반란 세력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

宋公明一生忠義, 連我們面上少了光采, 動不動說是梁山泊餘黨! 聞煥章道, 總是爲官司逼迫, 出於無奈, 就是小生局外之人, 也牽惹在內. <水滸後傳>, 19회, 171면.

26) 阮小七大叫, 快活! 我們兄弟都起事了! <水滸後傳> 13회, 118면.

금오도의 도장(島長) 사룡(沙龍)은 용력이 있고 포악할 뿐만 아니라 섬라국 24개 섬들 중 가장 강대하여 섬라국왕도 사룡을 어찌지 못하는 인물이다. 사룡을 처치해야 금오도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준은 금오도의 성 안팎 양쪽에서 협공한 결과 사룡을 잡고 금오도의 수장이 된다.<sup>27)</sup> <수호후전>의 사룡은 만인 출신의 기골이 장대하고 도끼를 잘 다루며 이준과 비보 두 사람을 대적할 만큼 용력이 무쌍한 장수이다. <홍길동전>의 울동과 흡사한 형상이지만, 울동과 같이 괴수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지 않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인물 형상을 가진다. 이준이 섬라국의 왕으로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청예도, 조어도, 백석도 3개 섬의 반란을 진압했기에 가능했다.<sup>28)</sup>

그렇다면 새로운 세계는 기존 세계와 달리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인가. 한마디로 이곳에서는 비록 충돌과 저항이 있지만 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양산박 잔당이라는 과거의 통념적 인식은 지워지고, 이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

다음날이 오자 이준은 스스로 정동대원수라 하고 대송의 선화연호를 따르고 백성들을 안무하는 방을 내 걸어 화재를 입은 자들에게는 은과 쌀을 주고 모두 기거할 곳을 만들어 주며 칙실 이상되는 사람들에게는 비단 한 필씩을 함께 보냈다. 모인 부녀와 노비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쳐 돌아가게 하니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였다...(중략)...청수오의 장정들과 투항한 만병들이 모두 삼천이 넘었으므로 5개 영으로 나누고 각처에 초호를 두어 하나하나 중국의 법도를 따라 대독의 깃발을 만드니[군영을 정비하는 것] 한층 쇠신되었다. 또 토인에게 묻기를 사룡이 있을 때 송사와 전량은 어떻게 시행

27) <水滸後傳> 11회, 100~103면.

28) <水滸後傳> 35회 318~323면.

했는가? 하니 토인이 답하길 사룡이 있을 때는 형장을 사용치 않았습니  
다. 만약 중죄인 경우에는 찢어 죽였고, 가벼운 경우에는 쌀을 바치게 했습니  
다. 전량은 반을 거둬 갔습니다. 이준은 낙화를 시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강간자와 도적은 칠십대를 때리고 전량은 십분의 일만 내도록 한다는 법령  
을 선포하였다. 백성들이 모두 감격하여 믿고 따랐다.<sup>29)</sup>

이준이 금오도에서 사룡을 진압한 후 통치 질서 체계를 바로잡는 부분  
이다. 새로운 세계에서 정동대원수라 칭하면서 섬라국 관할 청수오와 금  
오도의 토민들과 만병들을 모두 포용한다. 이는 청수오와 금오도민의 입  
장에서는 기존의 질서 체계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질서의 구축이라기보다  
이준 일행을 수용함으로써 어그러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쇄신되  
었다(煥然一新)’라는 것은 이를 뜻한다. 이준 일행은 비록 충돌과 저항을  
경험하긴 하지만, 새로운 세계에서 기존 질서를 쇠신하고 그 세계에 안존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는 미개척의 야만의 공간이  
아닌, 이미 구축된 질서 속에 놓인 사회이고, 이준 일행이 그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그 세계에 편입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바다 건너의 세계는 이들에게 가능성을 지닌 개방된 사회라 할 수  
있다.

섬라국에서 진입하는 과정도 이와 흡사하다. 금오도를 차지했던 이준  
이 섬라국왕의 저항에 부딪친다. 섬라국 24개 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섬

29) 次日起來, 李俊自稱征東大元帥, 一應曉諭用大宋宣和年號, 出榜安撫居民, 被火  
焚者給賞銀米, 與他蓋造房室, 七十以上者俱送緋緞一定, 搶來的婦女奴婢出曉諭  
教人領回, 百姓盡皆歡喜. …(중략)…清水澳招集的壯男, 投降的蠻兵, 共有三千多  
人, 分派五營, 設立隊伍哨把, 一依中國法度, 造作旗幟大纛, 煥然一新, 又問土人,  
沙龍在日, 島內凡有訟獄錢糧是怎地施行? 土人答道, 沙龍不用刑杖, 若法重罪,  
把木春春死, 輕者罰米穀, 錢糧到收成時平分. 李俊命樂和頒下律領 殺人者償命,  
奸盜杖七十, 錢糧行什一之法, 百姓盡皆感仰. <水滸後傳> 11회 104면.

인 금오도를 빼앗긴 섬라국왕 마새진은 금오도의 탈환을 선포하나 승상 공도가 패하고 장수 탄규가 죽자 어쩔 수 없이 이준 일행을 맞아들인다.

과인이 평소 성품이 인자하여 백성이 다치는 것을 참지 못하는데 원수가 성 아래에 이르러 시살하고자하니 오직 두려운 것은 양쪽이 상해를 입는 것이요. 만약 섬라국을 주면 편할 것이나 다만 한나라 북과장군이 세운 이래 여러 대가 지났으니 선조들의 강토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는 것을 참을 수 없어했더니 오히려 당신들은 주저한다고 불쾌하게 생각했오. 과인의 원비는 동경 소참정의 딸로 승상 장돈의 모함으로 담주에 안치해 있었는데 그 계기로 나의 왕비가 되었오. 딸 하나를 낳아 옥지라 하였는데 시집갈 나이가 되었고 인물도 좋고 덕성도 있어 중화의 선비를 불러 사위로 삼고자 했으나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려웠오. 마침 성중에서 보니 말 탄 소년장수가 현양하고 영준하며 기상도 남다르던데 어떤 사람이오? 결혼은 했오? 마음에 부마로 삼아서 양쪽의 병사들을 쉬게 하고 전쟁을 그만두며 영원히 번국으로 다시금 공물을 바치기로 하는 것이 어떠하오. 한나라와 당나라가 화친의 예가 있었는데 이를 좇을는지 모르겠오?<sup>30)</sup>

섬라국 왕이 이준 일행을 수용하는 장면이다. 적대적 관계를 풀고 소년 장수[화봉춘]과 마옥지를 결혼시키자는 제안을 한다. 섬라국 왕의 일시적인 저항이 있었으나 이준 일행은 이를 진압했고, 섬라국왕은 자신의 왕위와 지금까지의 섬라국 통치 방식을 유지한 채 이준을 수용한다. 이런 점

30) 寡人素性仁慈，不忍害民，師到城下，用兵弑殺，惟恐兩傷。若便納土，但本係漢祖伏波將軍新息候之後，立國暹羅，已歷數世，不忍祖宗疆土一旦淪亡，尙爾躊躇不快。寡人元妃是東京蕭參政之女，因被章惇丞相傾陷，安置儋州，故聘爲妃。生下一女小字玉芝，年已級笄，儀容不劣，頗知德教，要招中華士人爲婿，一時難遇。適在城上，見馬上少年將軍軒昂英俊，氣度不凡，不知上姓？可曾完姻否？情愿招爲駙馬，兩家息兵罷戰，永作藩臣，重來進貢。漢唐原有和親之例，不識可俯從否？<水滸後傳> 12회 109면.

에서 섬라국 사람들은 이준 일행을 양산박 잔당, 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세력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보다 뛰어난 능력과 문명의 소유자로 인식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요컨대 이준은 섬라국과 화해할 수 있었고 중국에는 승상 공도의 반역으로 마새진이 죽게 되자 섬라국의 왕위를 잇게 된다. 강압적 무력에 의해 신세계를 개척한 것이 아닌 어그러진 섬라국의 질서를 바로잡은 공로로 소왕후와 섬라국 관료들의 승인 하에 왕위를 계승한다.<sup>31)</sup>

요컨대, <수호후전>의 이준과 이들 일행이 겪었던 송나라라는 세계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세계의 질서에 맞서 싸우거나 전복시킬만한 힘이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병조판서를 얻어 내며, 그 세계를 박차로 나온 홍길동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홍길동은 현실을 전복하고 새로운 가치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나 충들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것인 반면, <수호후전>의 인물들은 이와 다르게 송에서 용납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복의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로 망명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여 지배 질서에 편입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호후전>은 <홍길동전> 향유층의 상상적이며 허구적인 신세계로의 기대와는 다르다. <수호후전>의 섬라국 지향은 <홍길동전>과 달리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있는 문학적 사실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준이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며 바다로 나가려했을 때 큰 배를 취득하고 통역사를 구하는 등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바다 건너 세계로 향하는 준

31) 蕭王后在簾內說道…(중략)… 今已討賊正典, 但國位不可久虛, 今請列位公議一位嗣統爲王, 但使馬氏血食不致斬絶, 實爲萬幸. 李俊道, 國爲馬氏之國, 本姓旣絶, 花逢春有半子之誼, 理合承祀宗祧, 何必別議? …(중략)… 三人同聲道, 花駙馬之言實出衷心, 大將軍創業不易, 事有經權, 何必推遜? …(중략)… 國母道, 燕將軍之言極爲有理, 就此定議, 只消擇日登位便了. <水滸後傳> 34회, 311~312면.

비를 한다.<sup>32)</sup> 이것은 허의가 섬라국의 주변에 암초가 많다는 등 뱃길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는 점, 안도전이 고려를 갔다 오다가 난파를 당해 섬라국에서 잠시 머물렀던 내용,<sup>33)</sup> 호성 역시 섬라국에 가본 적이 있다는 언급 등을<sup>34)</sup> 볼 때도 드러난다. 결국 이준 일행은 섬라국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준 일행의 인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호후전> 향유층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sup>35)</sup> 이들에게 섬라국은 상상적 공간이 아니라, 실재하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의 탈출구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망명지였던 것이다.

### 3. <홍길동전>과 <수호후전>의 해양 인식의 이중성

그렇다면 <홍길동전>과 <수호후전>에 나타난 ‘해양 인식’은 어떠한가. 좀 더 정확하게 이들 두 작품에서 보인 바다 건너 세계 지향에서 읽어 낼 수 있는 해양 인식은 어떠한가. 그것은 한마디로 탈출의 통로이자 단절의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단서는 두 작품의 등장인물이 모두 탈출을 꿈꾼다는 것에 있다. 현실 세계를 가득 채운 시간의 불안과 함께 제도의 그물망에서 탈주하고자

32) <水滸後傳> 10회 94~95면.

33) <水滸後傳> 13회 115~117면.

34) 扈成接口道, 我曾飄洋到暹羅國, 那金鰲島果是個好去處. <水滸後傳> 13회, 117면. 호성은 섬라국만큼 부유하고 풍족한 곳을 보지 못했을 뿐더러 음식 습관이나 풍속, 인정이 우리 중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도 한다.

35) 섬라국이 현재의 태국이라는 실재적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진침이 명나라 말엽 장수 정선공이 타이완을 근거로 청나라에 항거했던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섬라국은 실재적 공간인 동시에 이준 일행이 꿈꾼 신세계인 것이다.

한다. 문학은 바로 이런 탈주의 허구와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일상을 구획한 폐쇄된 장소를 벗어나 자유를 구가하는 열린 공간으로 비상하고자 하는<sup>36)</sup> 것이다. 실제로 <홍길동전>과 <수호후전>의 등장인물은 현실 세계의 질서구조가 가진 모순과 불합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런 질서 구조를 전복할 힘이 있는 아니면 변변한 저항조차 불가능했던 간에 현실 세계의 억압과 모순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게 한다. 이때 이들이 눈을 놀린 것이 바로 바다이다. 구획된 폐쇄의 장소, 구축된 질서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과 기대를 가지고 바다를 바라본 것이다.

이것은 <홍길동전>과 <수호후전>의 바다가 일종의 탈출로이자 기대와 여망의 통로임을 의미한다. 이들 작품에 있어 바다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현재 세계와 공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다 건너 세계를 꿈꾼다는 것은 바다를 탈출의 가능성을 가진 통로로 인식한다는 것이고, 그 인식의 면에서 양자는 동질적이다. 영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낭만적, 이상적 공간 혹은 현실적 망명지로 열려 있는 가능성과 기대의 통로이다. 물론 그렇다고 두 작품에 드러난 개방과 차단 인식의 동질성은 아니다.

모두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이렇게 도적떼를 데리고 사라지니 온 나라 안이 잠잠하였다. 이에 나무를 베어 집을 세우고, 대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지질(地質)이 온전하매 온갖 곡식이 잘 자라서 목정밭은 갈지 않고 김매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씩이나 달렸다. 삼년 먹을 식량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長崎島)에 가서 팔았다. 장기도는 일본(日本)의 속주(屬州)로서 호수(戶數)가 31만이나 되는데, 바야흐로 큰 흉년이 들었는지라 드디어 다 풀어먹이고는 은(銀) 백만 냥

36) 장일구, 『서사공간과 소설의 역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9, 220~232면.

을 거두었다. 허생은 탄식했다. ‘이제야 내 조금 시험해 보았구나.’ 하고는, 곧 남녀 2천 명을 모두 불러 놓고, ‘내 처음 너희들과 함께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富)하게 한 연후에 따로이 문자(文字)를 만들며 옷갓을 지으려 하였는데 땅이 작고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려나. 너희들은 어린애가 나서 손가락을 잡을 만하거든 오른손으로 쥐기를 가르치고 하루를 일찍 낚어도 먼저 먹게 사양하려다.’ 하였다.<sup>37)</sup>

박지원의 <허생전> 일부이다. 허생은 도적떼를 데리고 섬에 가 새로 땅을 일구고 정착을 시도한다. 허생의 시도는 성공적인 것이다. 풍작을 이루어 넉넉한 삶을 꾸릴만하고, 앞으로의 삶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물질 기반을 갖춘 후 옳은 일[=오른손]을 행하라는 말과 함께 장유유서(長幼有序)의 도덕률을 권한다. 이같은 허생의 조처는 권력과 탐욕, 부정과 부패, 법률과 형벌이 가득한 세상과는 다른 소박한 유토피아의 일종이다. 그러나 허생이 꿈꾸었던 세계의 건설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들이 차지한 공간의 협소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질서의 구축을 통한 자신의 이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문자를 짓고 의복을 정비하는 일[=문물의 정비]을 포기하며 탄식한다.<sup>38)</sup> 이런 <허생전>에는 <홍길동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바다 건너 세계에 대한 인식, 바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즉 <홍길동전>처럼 미개척지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나며, 이것은 바다가 자신

37) 朴趾源, 『熱河日記』, 『玉匣夜話』, <許生傳>.

38) 배병삼은 허생전의 섬의 위치가 사문과 장기 사이에 있는 곳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허생의 유토피아는 지리적 구체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작은 규모의 국가 즉 家의 설립이라는 점에서 허생이 애초에 품었던 계획이 아니라 차선의 섭섭한 유토피아라고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폐쇄적 공간인 조선 속에서 숨막혀 했을 많은 독서인들에게 해상에 대한 꿈을 불어넣는 낭만적(몽환적)으로 묘사되었다고 보았다. 배병삼, 『박지원의 유토피아』, 『정치사상연구』9, 한국정치사학학회, 2003, 16~21면.

의 이상으로 향하는 통로, 미개척지를 향해 열려 있는 통로임을 의미한다. 바다는 무한한 도전과 상상력의 진출로, 낭만적 기대의 통로인 셈이다.

중국의 경우 역시 바다를 탈출의 통로로 인식함에는 동일하다. 명초 정난(靖難)의 변으로 죽음을 맞은 건문제(建文帝)가 삭발위승(削髮爲僧)한 채 바다로 도망하고, 그로 인하여 영락제(永樂帝)가 정화의 해외 원정을 지원했다는 야사(野史)야 말로 바다가 폐쇄된 공간의 유일한 탈출로임을 의미한다. <수호후전>에서 이준 일행이 중국에는 바다로 향할 수밖에 없었음도 바다가 이와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담고 있는 탈출로였기 때문이다. 물론 바다가 이상 실현의 가능성을 담은 개척지로의 열린 통로라기보다 현실 탈출의 유일한 도피처라는 점에서 <홍길동전>이나 <허생전>과는 그 의미 지향은 다르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바다가 차단과 단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지원의 <허생전>을 다시 보도록 하자.

[허생은: 필자 주]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게 하며, ‘가지 않으면 곧 오는 이도 없겠지.’ 하고, 또 돈 50만 냥을 바닷 속에 던지며, ‘바다가 마를 때면 이를 얻을 자 있겠지. 백만 냥이면 이 나라엔 용납할 곳이 없으리니 하물며 이런 작은 섬일까보냐.’ 하고, 또 그 중에 글을 아는 자를 불러내어 배에 태우고, ‘이 섬나라에 화근(禍根)을 뽑아 버려야지.’ 하고는, 함께 떠나왔다.<sup>39)</sup>

역시 <허생전>의 일부로, 허생이 도적의 무리를 섬에 남겨두고 떠나오면서 취한 조치들을 말하고 있다. 허생이 이상적 공간에서 없던 것은 배와 돈, 글자를 아는 자였다. 배는 공간의 이동, 돈은 교역에 의한 이익 추구라는 탐욕, 글자는 지배층의 형성과 권력을 의미한다. 이것들은 사육의

39) 朴趾源, 『熱河日記』, 『玉匣夜話』, <許生傳>

추구에 의한 지배와 피지배, 경쟁에 의한 이익의 추구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배는 이런 세계에 와서 이 이상적 삶의 공간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것을 나타낸다. 허생이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겠”다고 한 것은 이 세계를 폐쇄적으로 지키고자 함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바다는 차단, 단절의 의미를 지닌다. 억압받았던 자의 관점에서 보면 탈출이자 낭만적 혹은 낙관적 기대의 통로지만, 바다를 건너서 존재하는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바다는 곧 침략로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바다는 성벽이 되고 보호막이 된다.<sup>40)</sup> 이런 점에서 바다는 격절(隔絶)의 공간적 특징을 지니게 된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건설한 울도국과 조선이 양립할 수 있던 것은 바다라는 단절의 공간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홍길동이 가진 전복의 힘이 조선에 미치지 않으리란 기대와 조선의 폭압적 질서 구조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양자의 공존을 담보하는 근거가 되며, 그것은 바다의 단절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세 시기 바다의 험난함은 그 험난함으로 인하여 절명의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피난의 통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단절과 폐쇄의 기능도 수행했던 것이다.

이준과 낙화가 해안에 올라가 저 바다를 바라보니 끝도 가늠할 수 없는 망망한 바다에서는 하얀 파도만 밀려오고 찬 안개와 운무가 막막히 덩허있어 동서를 분변할 수 없고 밤낮을 구분할 수 없었다. 이준이 근심이 일어 말하길 바다가 저렇게 망망하니 어느 방향으로 가야 옳은가.<sup>41)</sup>

40) 김경미 『타자의 서사, 타자와의 서사 <홍길동전>』, 『고소설연구』 30집, 한국고소설학회, 2010. 이의 논문은 <홍길동전>을 길동의 입장에서 논의한 것만 아니라, 제도과 울도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홍길동전>이 제국주의적 산물의 자취가 보인다는 논의이다.

41) 李俊, 落和登了海岸, 望那海, 拍天無際, 白浪翻空, 寒烟漠漠, 積氣瀾瀾, 不辨東

<수호후전>에서 바다로 나가기 전에 등장인물들이 논쟁하는 말미에 있는 부분으로 이준과 낙화가 해안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이다. 끝없이 전개되는 바다의 망막함은 인간을 한없이 좌절시킨다. 하얀 파도만 존재하는 공간의 저편에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이란 기대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또한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하기만 하다. <수호후전>의 등장인물들이 현실 세계에서 좌절했으면서도 바다 앞에서 다시 막막한 심정을 겪는 것이야말로 이들의 바다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바다는 망망한 도전의 공간,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현실의 벽이 굳건하게 차단된 벽이라면 바다는 끝없이 열려 있어 그 시작과 끝을 가늠할 수 없고 방향성을 짐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단과 단절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바다에 대한 경험이 있던 이들에게 바다의 거대함은 쉽사리 정복할 수 없는 것이란 사실은 분명하고 객관적 실체이다. <수호후전>의 인물들이 고래를 보고 그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한 것은 바다와 바다에서의 항해 경험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바다는 막연한 대상이 아닌 구체적인 실체였던 것이다. 이들이 항해에 앞서 바다를 건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을 토로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양상은 <홍길동전>에서 바다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대비적이다. 홍길동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다를 건널 수 있다.<sup>42)</sup>

---

西, 那分晝夜. 李俊看了 有些憂疑起來說道, 這般無邊崖的所在, 那有可居之地? 落和道, 今日陰晦, 景色淒涼, 若天氣清明, 島嶼歷歷可見, 定有好去處, 不必憂心. <水滸後傳>, 10회, 94면.

42) 울도국과 한양을 왕복하는 거리에 대한 개념이 일정하지 않은 것도 허구적 공간 인식임인 동시에 바다가 주는 개방성의 실체와 차단과 단절의 의미란 없었음을 나타낸다. ①몸을 소소와 남경으로 향하다가(한양→울도국) ②천리 빛기 잇사·오니(한양→울도국에 있는 흥판서 장지터), ③슈천 니 원노의 무스이 단여오물 바리노라(한양→울도국), ④삼 삭만의 제도 산후의 니르니(한양→울도국 제도), ⑤즉일 발헝허여 여

에초 바다를 구체적 대상으로 경험하지 않았던 향유층, 바다를 막연한 대상으로만 인식한 이들에게 바다라는 공간이 주는 거대한 개방성의 실체와 그 차단과 단절의 기능은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다만 바다 건너에는 미지의 세계, 열리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리라 기대와 상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홍길동전> 향유층에게 바다는 발 딛고 있는 현실과는 다른 차원일 것이라는 기대의 이미지<sup>43)</sup>를 가지고 존재했다. <홍길동전>에서 울도국이 야만성이 존재하리라 상상했던 것은 문명의 세계 질서와 오염을 피할 수 있었던 바다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구체적 경험으로 바다를 이해하고 있던 <수호후전>의 향유층들은 바다가 차단과 단절의 기능을 한다는 인식은 공유했지만, 그것을 막연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까닭에 바다 건너의 세계를 현실 세계와 유사한 세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준 등이 더 진보되고 우월한 문명 세계를 경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다 건너 세계에서 비교적 쉽게 어그러진 기존 질서를 바로잡고 지배 질서에 편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호후전> 향유층에게 바다는 그 차단적 기능으로 인해 문명의 차이와 차별을 발생시키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바다는 문명과 비문명이 아닌 문명의 우월과 열등의 간극을 만들어 가는 차단, 단절의 공간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 4. 맺는말

본고는 <홍길동전>과 <수호후전> 두 작품에 나타난 해양과 관련한

리 날만의 도선의 득달호여(울도국→한양).

43) 최영호, 「한국문학의 바다, 그 재발견의 의미」, 『한국한문학』43, 한국한문학회, 2009.

정보나 내용을 토대로 해양 인식의 동이를 확인함으로써 한중 문학 작품에 나타난 해양 인식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했다.

우선, <홍길동전>의 길동과 <수호후전>의 이준 및 양산박 일행이 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홍길동전>의 길동은 개아(個我)를 억압하는 제반 사회적 기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세상의 부조리와 억압적 질서의 틀에 맞선다. 길동은 세계를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존 세계와의 충돌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바다 건너 세계를 지향한다. 홍길동이 구축한 바다 건너 공간은 꿈과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새로운 질서의 구축이 가능한 원시의 공간이요, 미개적 공간이며, 순수의 공간이다. 그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았던 세계를 열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꿈과 야망을 실현한 것이다. <홍길동전>에 나타난 바다 건너 공간은 낭만적 상상과 허구적 기대로 만들어진 개척의 공간이다.

반면 <수호후전>에서 이준과 이준 일행은 부정, 부패, 부조리한 세계에서 도저히 살아가지 못하는 지경까지 몰린다. 이들에게 세계는 정의롭지 못한 공간이며 일말의 가능성도 차단된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지향한다. 새로운 세계의 저항이 있었지만 이들은 새로운 세계에서 양산박 잔당이라는 과거의 통념적 인식은 지워지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세계는 이미 구축된 질서 속에 놓인 사회이고, 이준 일행이 그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그 세계에 편입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바다 건너의 세계는 이들에게 가능성을 지닌 개방된 사회라 할 수 있다. 즉 <수호후전>의 바다 건너 공간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의 탈출구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망명지였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두 작품에서 보인 바다 건너 세계 지향에서 나타난

해양 인식은 무엇인가. 첫째 탈출의 통로로 바다를 인식한다. <홍길동전>과 <수호후전>의 등장인물은 현실 세계의 질서구조가 가진 모순과 불합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런 질서 구조를 전복할 힘이 있든 아니면 변변한 저항조차 불가능했던 간에 현실 세계의 억압과 모순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게 한다. 이때 이들이 눈을 놀린 것이 바로 바다이다. 구획된 폐쇄의 장소, 구축된 질서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과 기대를 가지고 바다를 바라본 것이다. 이것은 <홍길동전>과 <수호후전>의 바다가 일종의 탈출로이자 기대와 여망의 통로임을 의미한다. 다만, <홍길동전>에서 바다는 자신의 이상으로 향하는 통로, 미개척지를 향해 열려 있는 통로, 무한한 도전과 상상력의 진출로, 낭만적 기대의 통로인 반면, <수호후전>에서 바다는 현실 탈출의 유일한 도피처라는 점에서 각각의 의미 지향은 다르다고 하겠다.

둘째, 차단, 단절의 의미로 바다를 인식한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가진 전복의 힘이 조선에 미치지 않으리란 기대와 조선의 폭압적 질서 구조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양자의 공존을 담보하는 근거가 되며, 그것은 바다의 단절성에 기인한 것이다. <수호후전> 역시 바다는 망망한 도전의 공간,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공간이었다. 방향성을 짐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단과 단절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홍길동전>에서는 바다를 구체적 대상으로 경험하지 않고 바다를 막연한 대상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차단과 단절의 기능은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문명의 세계 질서와 오염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다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반면 <수호후전>은 바다가 차단과 단절의 기능을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막연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때문에 바다는 문명의 차이와 차별을 발생시키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두 작품 사이의 해양 인식의 동이(同異)는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水滸後傳>, 古本小說集成編委會編, 『古本小說集成』 574~575, 上海古籍出版社. 1~1212면.
- <水滸後傳>, 世界書局, 1983.
- <홍길동전>, 경판30장본(김동욱, 『한국고전소설판각본자료집』 5, 국학자료원, 1997, 1003~1018면)
- 『澤堂集』 15권 「雜著」
- 『熱河日記』 「玉匣夜話」, 『許生傳』
- 강동엽, 「허균과 유토피아」, 『한국어문학연구』 41,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3, 139~170면.
- 김경미, 「타자의 서사, 타자화의 서사 <홍길동전>」,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185~212면.
- 김정녀, 「고전서사문학에서 해양문학론의 현황과 전망」, 『인문사회과학』 12,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1, 25~43면.
- 배병삼, 「박지원의 유토피아」, 『정치사상연구』 9, 한국정치사상학회, 2003, 7~35면.
- 서신혜, 「조선인의 유토피아」, 문학동네, 2010, 1~144면.
- 서종문, 「홍길동전 울도국의 생성과 그 의미」, 『국어교육』 27-1, 국어교육학회, 1995, 105~158면.
- 이려추, 「수호전과 홍길동전의 비교연구」, 『아시아문화연구』 14, 경원대아시아문화연구소, 2008, 119~151면.
-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2009, 1~430면.
- 장일규, 『경계와 이행의 서사 공간』,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1~354면.
- 최영호, 「한국문학의 바다, 그 재발견의 의미」, 『한국한문학』 43, 한국한문학회, 2009, 21~48면.
- 최병운, 「한중 고전소설에 나타난 욕망과 그 실현 양상」, 『한중인문학연구』 28, 한중인문학회, 2009, 253~272면.
- 솔츠, 김광현 역, 『실존, 공간, 건축』, 산업도서출판공사, 1980, 1~202면.

ABSTRACT

Meaning of pursuit of a new world across the sea  
in the korea classical novel  
-Compared of <Hong-Gil-Dong-Chon> and <Su-Ho-Hu-Chon>-

Choi, Yun-hi

This thesis aims to research on meaning of pursuit of a new world across the sea in the korea classical novel, especially Comparison <Hong-Gil-Dong-Chon> and <Su-Ho-Hu-Chon>. Analysis of why the characters were forced to seek a new world across the sea. Argumentation is aware of how the new world across the sea did.

So, <Hong-Gil-Dong-Chon>, the frontiers of romantic utopian expectations expressed are. Optimistic expectations about realistic exile is revealed <Su-Ho-Hu-Chon>.

Sea was described as a pathway of escape and was blocked and disconnected in the two works. But the former is passage and romantic expectations, the latter is a refuge to escape reality. In the same position, the former is no significance, the latter is space, the sea is causing the difference between civilization and discrimination. These is the recognition of the duality of marine.

**Key Words** Hong-Gil-Dong-Chon, Su-Ho-Hu-Chon, the frontiers of romantic utopian expectations, Realistic exile, the recognition of the duality of marine, pathway of escape, Disconnected and blocked.

논문투고일 : 2012. 10. 25

심사완료일 : 2012. 11. 28

게재확정일 : 2012. 12. 02

